

특검, 이재용 등 30명 기소...공소유지 올인

마지막날 17명 재판에 넘겨 최순실 재산 추징 보전 절차 팀 운영 공소 유지 체계 전환 최종 수사 결과 6일 발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쳐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28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최순실·안종범 추가 기소 포함)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기고 수사를 마무리 지었다.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운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13명을 합하면 총 기소 대상자 수는 30명에 달한다. 1999년 특별검사제 도입 이후 출범한 12차례 특검 가운데 가장 돋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이 부회장을 뇌물공여, 특정경

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씨측에 433억원대 자금 지원 약속을 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러한 부당 자금 지원의 실무 역할을 한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장종기(63)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64)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정 겸 대한삼미협회 회장, 황성수(54) 삼성전자 전무 등 삼성 수뇌부 4인방도 모두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 11월 검찰 수사 단계에서 직권남용 관리행사방해(공방)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받는 최순실씨는 특검에서 삼성과의 부당 거래 사실이 확인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최씨의

공소사실에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ODA) 참여를 대가로 사업가로부터 뒤통을 찡긴 혐의(알선수재),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를 청탁한 혐의(업무방해·공무집행방해·사문서 위조 미수)도 적용됐다.

특검은 최씨가 삼성에서 부당하게 취득한 수익에 대해 재산을 동결해달라는 추징 보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에서 최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8) 전 대통령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역시 최씨의 지인인 박재운 와이제이컴즈메디칼 대표로부터 대가성 공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가 드러나 추가 기소 대상이 됐다.

청와대 ‘비선 진로’ 의혹의 핵심인물이자 박 대표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5)씨, 대통령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55) 전 녹십자아이메드 원장, 정기양(58) 연세대 의대 교수 등도 불구속으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

이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관여한 홍완선(61)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에게 차명 휴대전화(대포폰)를 개설·제공한 의혹 등을 사는 이영선(38) 청와대 행정관, 이대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된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도 이번 재판에 올랐다.

특검은 이날 최종 기소 대상자만 추려 발표했으며,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6일 오후 2시 수사결과 발표 때 일부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70일간 수사를 통해 기소 대상자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팀 운영을 수사에서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했다. 특검은 이번 수사에서 맹활약한 파견검사들이 공소유지 작업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검찰 인력을 총괄하는 법무부에 8~9명을 공판 요원으로 잔류시키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연합뉴스

‘적반하장’ 김기춘

“역지 기소...죄목 밝혀라” 특검팀에 법정 선전포고

이른바 문화예술계 지원매체 명단(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측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법정 선전포고’를 날렸다.

특검이 기소한 김 전 실장의 범죄사실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특검이 무리하게 법적 잣대를 들이대 ‘역지’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A4 용지 7장 분량의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을 밝힘)요구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우선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 변호인단은 “김기춘의 어떤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인지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달라”고 요구했다.

변호인단은 김 전 실장이 청와대 회의에서 “중복체력이 문화계를 15년간 장악했

다. CJ와 현대백화점 등 재벌도 줄을 서고 있다. 정권 초기에 사정을 서둘러야 한다. 이것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국정과제다”라고 말한 부분 등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문제삼았다.

변호인단은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의 지원 현황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변호인단은 “당시엔 문화예술계의 지원 대상이 이법적으로 좌편향돼 코드인사와 이념에 따른 지원이 극심했다”며 “그런 행위로 같이 범죄라고 본 것인지, 아니면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정책만 범죄라고 본 것인지 답변해달라”고 요구했다. 정책적 판단은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다.

한편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특정 문화인이나 단체에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문화예술계) 지원매체 조지와 관련해 전체 기획·집행,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생애 첫 치과 치료·손 전등 켜고 수술...네팔 광주진료소 뜨거웠다

이틀간 한방·안과 등 800명 진료

지난달 25일 문을 연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이틀 동안 광주 의료진이 진료한 환자는 800여명으로 집계됐다. 평생 처음 치과 치료를 받고, 돋보기 등을 받아든 주민들은 광주 인술(仁術)에 감사와 경의를 표했다.

네팔 파르밧현(Parbat District) 디무와(Dimuwa) 마을에 위치한 네팔 광주진료소는 25일과 26일 이틀 동안 한국에서 온 광주의료진들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 매일 수백명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결막염 등을 앓고 있는 안과 환자들이 가장 북새통을 이뤘다. 이 때문에 안과 의사이기도 한 윤장현 광주시장은 애초 하루 진료만 계획했던 일정을 하루 더 늘려 이틀 동안 환자 320명을 진료하는 등 진땀을 쏟았다.

밝은 광주안과와 송정안과, 좋은 안과 등에서 후원한 돋보기 400개는 일찌감치 동이 났다. 파르밧현 주민 대부분이 산 비탈을 깎아 밭 농사를 짓는 등 농업에 종사하는 탓에 관절염 환자들이 많아 한방 치료가 단연 인기를 끌었다.

진료소 2층에 마련된 정연한방병원의 한방 진료실에는 이 기간 118명의 환자들이 몰리면서 주민들은 낯선 처음 보는 침 치료와 한방 파스를 제공 받고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서광병원 서해원 원장은 전기가 부족한 탓에 자구 정전이 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손 전등에만 의지해 손가락 수술을 해 주민들에게 찬사를 받기도 했다.

서 원장은 한달 간 네팔 광주진료소에 거주하며 외과 환자들을 돌보고, 현지 의사들에게 일부 외과 수술 등을 교육시킬 계획이다.

첨단 배후원 내과 원장과 홍경표 내과 원장은 이틀 간 300여명의 환자들을 돌봤고, 첨단 미르치과병원 박석원 원장을 비롯한 치과팀은 충치 등의 고통을 호소



지난 26일 네팔 광주진료소에서 서광병원 서해원 원장이 정전 속에서 손전등에 의지한 채 손가락 절절 수술을 하고 있다.

하는 환자 109명을 진료했다. 상무아이들 약국 신은옥 약사는 수 백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처방전을 처리하느라 눈코 뜰새없이 동분서주했다. 주민 반다르(62)씨는 “머나먼 나라 한국에서 온 의사들이 천사와 같다”면서 “배에 그동안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는데 이번 번치 않은 병원 한번 가보지 못했는데, 광주 의사의 친절함과 따뜻한 진료로 감사할 뿐이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의료진의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과 문태환·김민종 시의원은 디무와 마을 개발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네팔 광주진료소 발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봉사활동에 참여한 광주지역 직원들은 시청 직원들이 모아 준 학용품과 운동용품 등을 마을 인근에 있는 11개 학교에 전달했고, 광주국제협력단 소속 봉사단원들은 마을 아이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파르밧(네팔) 글·사진=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상근-임시직 월평균 임금격차 215만원

지난해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 간 임금 격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 28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상용직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2만 3000원(세금공제 전)으로 전년의 349만원보다 3.8% 증가했다.

임시·일용직은 146만 9000원으로 전년(142만 4000원)에 비해 3.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작년 상용직과 임시·일용직 간 임금 차이는 215만 4000원으로 전년의 206만 6000원보다 4.26% 상승하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2012년 188만 5000원, 2013년 192만 2000원, 2014년 199만 1000원 등으로 매년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용 5~300명 사업체의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04만 8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3.7%, 상용 300명 이상 사업체는 495만 9000원으로 2.3% 각각 증가했다.

산업별 임금총액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633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금융·보험업(571만 2000원)이 그 뒤를 따랐다.

임금이 가장 적은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88만 1000원)이었다.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207만 7000원) 근로자도 임금을 적게 받았다. /연합뉴스



지난해 임금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산업은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8.1%)이었다. 이어 협회·단체·수리·기타 개인서비스업(6.5%),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환경복원업(5.8%) 등 순이다.

전체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1.0시간으로 전년(172.6시간)보다 0.9%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76.9시간으로 전년대비 0.8%, 임시·일용근로자는 112.8시간으로 1.6% 각각 감소했다. /연합뉴스

수강생 모집

DIY 목조주택 혼자짓기

이동식 목조,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심관 ☎ 062-670-2167~8
3월 ~ 6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3월 ~ 6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악캠퍼스 ☎ 061-270-1612, 3
3월 ~ 6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2017 漢字·漢文指導師資格

※ 教育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247)	광주교육대학교(157)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7. 3. 3.(금) 09:10 (초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7. 3. 4.(토) 09:10 (특급반)	·월요일 오후반: 2017. 3. 6.(월) 14:1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7. 3. 2.(목) 09:10 (초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7. 3. 4.(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7. 1. 18(수)~3. 4.(토)	2017. 1. 18(수)~3. 4.(토)
수업기간	2017. 3. 3.(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2017. 3. 2.(금)~2017. 8. 12.(토) (6개월 24주 96시간)
수업시간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 오전반 09:10~13:00 · 오후반 14:10~18:00
수강료	₩ 36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 360,000 (예금주:광주교대) ·국민은행: 773901-01-476736
수료후 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 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 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법과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교수 ·3급~사범취득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1520-4243 ·지도교수(선명공): 010-3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http://www.gnue.ac.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수강생 선착순 모집)

무료공개 | 조선대 3월 2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강의일시 | 교육대 3월 6일(월) 주간 3시, 야간 7시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봅.

2017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2017년 1월 23일(월) ~ 2017년 3월 10일(금)
- 교육기간: 2017년 3월 29일(목) ~ 2017년 8월 8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강료: 20만원 (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신청방법: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elong [인터넷 수강신청]
- 접수문의: 0621230-7700~2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1학기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 온라인신청: 과정명(클릭) 수강신청 | 핸드폰인증 | 신청 | 수강료납부
- 오프라인신청: 방문접수, Fax접수(520-4245), 전화접수(520-4241~4243, 4248)
- 수강료: 20만원 (예금주: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국민은행 773901-01-476736
- 기간안내: 수강신청기간: 2017. 2. 1(수) ~ 2. 28(화)
교육기간: 2017. 3. 6(월) ~ 6. 12(월)
매주 목요일 주간 3시~5시 야간 7시~9시
- 상담지도교수: 송용욱 010-9416-1200